

##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활용



기축년 금년은 황소가 비바람 속에 곳곳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표는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 생존게임에 휩쓸리고 있다. 난관 극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조직일수록 시스템보다는 사장 한사람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수가 많다.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을 탓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지난 20여년간 정부는 중소기업에 위한 정책을 양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위한 자금지원, 연구개발지원, 인력지원, 판로와 수출지원, 광고와 디자인지원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애로

사항에 대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에 어려우면 기술개발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상품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기술개발센터가 도와주고 있다. 해외의 관련 기술 인력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해외 수출관련 컨설팅회사로 연결하여 현지화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정부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되면말고 하는 식의 성의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실패하지만,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는 중소기업은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중소기업의 사장은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